삼국지인간학 정리

컴퓨터공학과 20174324 이충희

1. 후한말의 역사(첫번째 영상 참고)

시호	재위 기간	주요 사건
		1) 청류파 : 외척과 환관에게 대항한 지식인 단체
		2) 당고의 금 : 후한 말기에 사대부 출신 관료세력과 환관 세력이 충돌하여, 환관세력이
환제	146 ~ 168	사대부 세력 인물들 다수 금고에 처한 탄압 사건.
		- 1차 당고의 금 : 166년 당시 환관들이 청류파 200명 관직을 박탁하고 이후 평생
		관직 진출을 막는 금고형에 내린 사건
		- 2차 당고의 금: 169년 환제가 죽고 어린 영제가 즉위하자 외척 두무가 실권을 잡음. 그리고 두무는 당고의 금을 해제하여 청류파에 속한 사람들을 등용하여 환관들의 세력을 꺾으려고 함. 이를 통해 두씨 세력은 진번/이응 등 청류파 관료에 이름이 높은 사람들을 등용하며 기회를 엿보았지만, 오히려 환관들에게 계획이 들통나 패배하였다. 이를 패배함으로서 이응을 포함해 죽은 자만 100여명이 넘었으며, 금고 처분을 받은 자는 600 ~ 700여명에 달하였다. 이후 호족 및 사대부 세력을 극단적으로 배척함으로서 후한 정권에 대한 지지는 폭락하였다.
영제	168 ~ 189	
	100 100	- 결과 : 당고의 금 이후 환관 세력들의 권력 독점은 심해졌으며, 삼국지의 시장을
		알리는 '십상시의 난' 또한 여기서 비롯되었다.
		- 주요인물 : 이웅) '등용문' : 황하 물줄기 중 가장 드센 물줄기. 당시 관직에 오르기
		위해서는 이응에게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당시 떠돌았다.
		3) 황건적의 난 : 184년 일어난 종교집단 태평도의 교주 장각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이다. 그리고 '삼국지'/'삼국지연의'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대배경이기도 함.
		4) 십상시의 난 : 189년 하진과 각종 유림 인사들을 세력으로 한 청류파와 장양 등의
소제	189	환관과 부패한 관리들을 세력으로 한 탁류파의 대립을 종지부를 찍은 사건. 이에 반발한
		십상시가 하진을 죽임. 이후 하진이 죽기 전 부름을 받은 동탁이 우연찮게 소제/헌제를
		발견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됨. 5) 동탁 토벌전 : 190년 소제가 어린나이에 죽고, 또 다른 어린황제 헌제가 즉위하자.
		어린 헌제를 낀 동탁은 권력을 장악하고 온갖 행패를 부리자. 원소를 중심으로 18로
		제후를 소집하여 동탁 토벌에 나선 사건임.
		- 주요 사건 : 술이 식기전에(관우가 화웅을 죽임), 옥새발견(손견), 양아들에게 배신
		당함(여포 -〉 동탁)
	100 220	- 결과 : 원소, 조조, 손견 등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었음.
_1 _n		6) 관도대전 : 200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조조가 중원의 패자로 올라선 결전.
헌제	189 ~ 220	원소 이동경로) 업 -〉백마 -〉관도 / 조조 이동경로) 허도 -〉관도 - 〉백마
		- 주요 사건 : 백마전투, 허유의 배신, 격안관화(강 건너 불구경 - 곽가, 때를 기다린다)
		7) 적벽대전 : 208년 조조가 압도적 우세를 점하던 시기에 조조통일의 염원이
		박살나고, 천하삼분지계가 시작된 분수령과 같은 결전.
		- 주요사건 : 화계(주유), 황개(고육지계), 장판파 전투(아두 구출)

8) 이릉대전 : 221년 촉과 오가 벌인 마지막 분쟁. 이 전투를 끝으로 양국간의
국경선이 확정되고, 두 나라는 다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됨.
- 주요사건 : 219년 관우의 사망(여몽), 221년 6월 장비 사망, 신흥 명장(육손)

2. 삼국의 정립

	위	촉	오
건국군주	문제(조비)	소열제(유비)	대제(손권)
멸망군주	원제(조환)	회제(유선)	말제(손호)
성립	220년	221년	222년
멸망	265년	263년	280년
수도	허도, 낙양	성도	무창, 건업
이후 국가 서진(사마염)			

3. 삼국지 3대 대전, 관도대전 - 적벽대전 - 이릉대전

- 1) 관도대전(200년)
- 2) 적벽대전(208년)
- 3) 이릉대전(221년)

4. 리더십이란? 리더의 자질

- 21세기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?

공감 : 자신을 멈추고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. 공감과 동정은 다르다! 타인을 이해하는 진정한 방법이 공감이다.

- 말할 때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
- 1) 사실이어야 한다.
- 2) 진실이어야 한다.
- 3) 도움이 되어야 한다.
- 4) 적절한 때에 해야 한다.
- 5)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.

5. 고사성어 : 삼국지연의로 보는 고사성어

1) 격안관화 물과 물고기 같은 사이. 뜻으로 안 본 사이에 부쩍 재주기	위	축	오
별로 득이 되지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. 조조 - 양수 3) 거재두량 뛰어난 인물이 수레에 싣고 말로 될 정도로 많다는 뜻으로, 인재나 뛰어난 물건이 많다는 뜻이다. 조조 - 양수 4) 칠보지재 일곱 걸음을 옮기는 사이에 시를 지의 수 있는 재주 기상자 기상자 기상에 나와 이론 일 없이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 의문 기사에 나와 이론 의 이 번 전쟁에 패했어도 다시 힘을 비 축해 승리를 거머쥐다. (의용 수 있는 재주 기사에 사를 지의 위엄이 산다는 뜻. 지각량 - 마속	강 건너 불구경, 원소가 죽은 후 세 아들이 다툼을 하다 스스로 자멸. 2) 계륵 별로 득이 되지 않지만 버리기엔 아 까운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. 조조 - 양수 3) 거재두량 뛰어난 인물이 수레에 싣고 말로 될 정도로 많다는 뜻으로, 인재나 뛰어난 물건이 많다는 뜻이다. 조조 - 양수 4) 칠보지재 일곱 걸음을 옮기는 사이에 시를 지 을 수 있는 재주	유능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만큼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. 유비가 제갈량을 등용하기 위해 세 번 찾아감. 제갈량 - 유비 2)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 같은 사이. 제갈량 - 유비 3) 비육지탄 허벅지에 살이 찐 것을 슬퍼하다.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이룬 일없이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유비 - 유표 4) 권토중래 한 번 전쟁에 패했어도 다시 힘을 비축해 승리를 거머쥐다. 5) 읍참마속 법은 예외 없이 엄격하게 집행해야법의 위엄이 산다는 뜻. 제갈량 - 마속 6) 신통방통 방통의 놀라운 능력 7) 남선북마 남쪽은 배, 북쪽은 말이 교통수단. 8) 도원결의 복숭아나무 숲에서 결의를 다짐.	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으로 안 본 사이에 부쩍 재주가 늘 었음을 의미. 노숙 - 여몽 2) 오하아몽 오 땅의 어리석은 아몽, 힘만 세고 머리는 못쓰는 사람을 뜻한다. 여몽 - 손권 3) 고육지계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. 황개 4) 논공행상 공로를 논하여 상을 행하다. 공로를 조사하여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겨 상을 내린다는 뜻이다.

6. 21세기 시민의식

- 신뢰도, 도덕성, 배려심, 협동력, 창의성, 공동체의식, 자기주도성, 조심성
- 공감력, 배려심, 창의력, 공정심, 주도력, 인내심, 소통력, 협치심

공감력	
배려심	
창의력	
공정심	
주도력	
인내심	
소통력	
협치심	